

국내 기업 보존기록에 관한 기초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Business Archives in Korea

남재우(Nam, Jae-woo)* · 김장환(Kim, Jang-hwan)**

1. 서론
2. business archives 의미에 대한 고찰
 - 1) business archives의 개념과 성격
 - 2) 용어의 표기 문제
3. 국내 기업 보존기록의 문제점과 현황
 - 1) 기록관리의 소외지: 공공기록 중심의 발전
 - 2) 기록관리의 불모지: 기업의 인식 부족
 - 3) 기업 보존기록 관리의 실제: 아산재단 사례
4. 결론 및 시사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lisnam@kku.ac.kr) (제1저자).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기록정보학 박사(skuijang@hanmail.net) (교신저자).

■ 투고일 : 2018년 1월 4일 ■ 최초심사일 : 2018년 1월 8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1월 15일.

〈초록〉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구성 주체로서 최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기록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록학이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현시점에도 기업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학계의 연구도 미진한 편이며, 기업 실무현장의 기록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학문적으로 기업 보존기록에 대한 개념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기록’, 또는 ‘기업사료’라는 용어의 검토과정이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business archives’에 대한 개념적인 검토와 현실적 진단을 통해 향후 기업 보존기록 관리 연구의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실제 보존기록 기록관리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이론적 논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주제어 : 기업 기록관리, 기업 보존기록, 기업사료, 사료관리

〈Abstract〉

Business is the key component of a capitalist system, and, recently, archives management in businesses has been emphasized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wever, until now, almost 20 years since archival studies were introduced in South Korea, there is a noticeably low interest in archives management. Archival studies in academic circles are still insufficient, and the level of archives management in the field of business practices is very low. For example, no academic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business archives, as well as the suitability of the use of such terms. Thus,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basic foothold of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studies in the future, examining the concept of “business archi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ould diagnose the present situations and help readers understand theoretical

discussions by introducing actual cases of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Keywords : business archives, corporate archives, business archives
management

1. 서론

기업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사장을 구성하는 중요 주체이다. 오랜 시간 기업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00년 대 이후 공공성을 내세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권한용 2011, 718).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공공성을 가진 정보의 공개성, 투명성, 설명책임성, 접근성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위해 증거력을 갖춘 기록을 기반으로 설명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정미리, 임진희 2016). 따라서 최근 기업의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기업 기록관리가 활발해졌다. 1925년에 이미 하버드 대학에 기업역사학회(Business Historical Society)가 설립되었으며, 1943년에는 타이어 회사인 파이어스톤 사(Firestone Tire and Rubber Company)에 미국 최초의 기업 아카이브가 설치되었다. 또한 기업기록을 통해 역사·경제적 사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역사학자와 경제학자, 그리고 사서의 학문적 요구로 기업 기록관리는 점차 확산되었다(주서진 2009, 10-11). 미국의 국립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가 1934년에 설립되었으므로 미국 기업의 기록관리는 시대적으로 공공기록관리와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공공기록에 초점이 맞추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영역의 기록관리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으로, 특히 기업 기록관리에 대한 논의는 더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국내 기업의 실제 현장에서는 문서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현용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보존기록은 별도의 역사기록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익한(2000)은 현용기록관리를 통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보존기록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실무 현장에서 양자가 통합 관리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2005년 삼양사에서 포털시스템과 문서파일링시스템, ERP시스템, 종이문서에 대한 통합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경영을 위한 현용기록관리 체제를 선도적으로 정비한 사례가 있으나(한국데이터진흥원 2005), 보존기록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기록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역사 및 창업자와 관련된 보존기록을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여 역사관 등의 전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업무기록에 지속적인 가치를 부여해 이관된 보존기록과는 성격이 다르며, 역사적 증거를 목적으로 수집된 매뉴스크립트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현용기록과 거의 연결고리가 없이 별도로 관리되는 보존기록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학계와 실무현장에서는 이 기록들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기업사료'로 지칭하며 'business archives'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business archives'에 대한 개념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기업 보존기록 관리 연구의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business archives'의 개념과 성격을 고찰하여 국내 기업 보존기록의 범위를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고 국내 기업 보존기록 관리에 대한 관심과 현황을 진단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연구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한 경험적 연구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이하, 아산재단)의 기업 보존기록 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business archives 의미에 대한 고찰

1) business archives의 개념과 성격

(1) business archives의 개념

미국기록전문가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SAA)의 온라인 용어사전(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에 의하면 기업에서 생산·접수한 기록은 공공기록에서와 동일하게 ‘records’와 ‘archives’로 구분된다. 우선 ‘business records’은 영리기업에서 향후 이용을 위해 보존하는 기록으로 정의되며, 법적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영리·비영리 목적 모두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된 업무활동의 결과만 증빙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business archives’는 영리기업에서 지속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는 기록으로 정의되며, 개인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에 상관 없는 영리활동으로 생산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corporate archives’가 있는데, 이는 합법적으로 인정된 법인의 기록을 의미하며 비공식적 집단(group)의 기록을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용어는 ‘business archives’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기업의 활동을 나타내는 ‘business’보다 기록 생산주체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SAA에서 발간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 활용 가이드」에서는 아카이브의 여러 유형을 구분하면서 기업 아카이브에 대해 ‘corporate archives’의 용어를 사용하였다(Schmidt 2011, 3). ‘corporate’는 메리엄 웹스터 사전(Merriam-Webster dictionary)에서 법인으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결국 ‘corporate archives’는 기업의 기록에 대한 구체성이 좀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Douglas(1982)는 ‘corporate archives’가 ‘business archives’보다 구체적이지만 두 용어는 상호 호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두 용어의 구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표 1〉 business archives의 개념

용어	개념	출처
business records	영리 기업(commercial enterprise)에서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신되며 향후 이용을 위해 보존된 문서 및 기타 자료	SAA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 수신 및 유지 되는 사업활동의 물리적 증거이며 종이, 디지털 및 시청각 자료와 같은 다양한 매체 형식으로 존재	TNA
business archives	영리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신되고 지속적인 가치를 위해 보존되는 기록	SAA
	기업과 수집형 보존소가 상업적, 법적, 역사적 이유로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선택하는 기록	TNA
corporate records	법인 영리 기업에서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신되며 향후 이용을 위해 보존된 문서 및 기타 자료	SAA
corporate archives	회사나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신되고 이들의 지속적인 가치를 위해 보존되는 문서나 기타 자료	SAA

영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개념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TNA)에서 발간한 「business archives를 위한 국가전략보고서」는 용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TNA 2009, 5).

“business records는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 수신 및 유지되는 사업활동의 물리적 증거이며 종이, 디지털 및 시청각 자료와 같은 다양한 매체 형식으로 존재한다. business archives는 기업과 수집형 보존소가 상업적, 법적, 역사적 이유로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선택하는 기록(records)이다”

한편, ‘business archives’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 포드 아카이브(Ford Archives)에서 근무했던 Douglas(1982)의 정의가 있다. 그는 “기업의 설립 및 성장을 기록화(documenting)하는 데 있어서 영구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역사기록 및 박물의 체계적 수집, 보존, 서비스에 특별한 책임이 있는 부서”로 ‘business archives’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장소

의 개념을 제외하면 ‘기업의 설립 및 성장을 기록화하는 데 있어서 영구적 가치를 지닌 역사기록 및 박물관로 파악할 수 있다(Douglas 1982, 281).

결국, 위에서 살펴본 정의는 일반적으로 현용·준현용 기록을 의미하는 ‘records’와 보존기록을 의미하는 ‘archives’의 기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business archives’는 기업에서 업무활동으로 생겨난 기록이 지속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는 기록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business archives의 성격

앞서 살펴본 정의들은 기록에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business archives’로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리 기업에서의 ‘지속적 가치’는 기업의 경영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SAA의 ‘business archives 분과(Business Archives Section)’가 설명하고 있는 ‘business archives’의 역할에서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아키비스트는 회사의 역사,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개발을 재구성하는 주요 문서를 선별하고 보존한다. 그 결과 중요한 법률과 관련된 거나 마케팅에서, 또는 의사소통 및 재정적 결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와 기록이 기업의 고유 자산으로 생겨난다. business archives는 관리자에게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점과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SAA *n.d.a*).

이뿐만이 아니라 SAA는 ‘business archives’가 홍보 및 광고, 투자자 관계, 정책 개발 및 평가, 정부 및 규제 업무, 상표 보호 및 라이선스, 소송지원, 채용,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직원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및 기업이력,

기업·고객·제품의 기념일 등 기업활동을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SAA에서는 기록에 부여된 지속적 가치를 관리자의 의사결정과 기업의 전반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치는 현용기록에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가치전이를 통해 보존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국립기록보존소(TNA)에서 발간한 「business archives 관리에 대한 가이드」에서 그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가이드에서는 ‘business archives’가 업무의 지식과 경험을 담고 있으며, 일상 업무의 일부로 생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및 고객 관계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상업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직원들의 충성도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TNA 2009, 2). 따라서 영국의 ‘business archives’도 미국에서와 같이 현용기록으로부터 연결되는 보존기록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경영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기록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business archives’ 유형으로의 기업 창업자와 재단에 관한 기록, 자본구조, 재무실적, 경영문화, 주요 성과 및 공적 이미지, 광고, 인수 및 전략적 제휴, 규제 당국과의 상호 작용, 상표, 기술 및 경영혁신에 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있다.¹⁾ 아카이브 유형으로는 사내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박물관, 대학, 연구시설 등 공공시설에 마련된 아카이브가 있으며²⁾, 사내 아카이브에 있는 기록들을 외부의 아카이브로 이관할 수 있다. ‘business archives’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타 단체가 생산한 기록이며, 문서, 상품, 광고, 그림, 사진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역사자료

- 1)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사기록에 속하는 기업당안을 국가의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본고에서는 우리와 환경적으로 유사하며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만 검토하고자 한다.
- 2) 대표적인 아카이브로 미쓰비시사료관(三菱史料館), 미쓰이문고(三井文庫), 스미모토사료관(住友史料館), 다카시마야사료관(高島屋史料館), 도요타박물관(トヨタ博物館), 도요타산업기술기념관(産業技術記念館), 시세이도자료관(資生堂企業資料館), 토토역사자료관(TOTO歴史資料館) 등이 있다.

를 포함하며 기업의 책임과 책임준수를 설명한다(Izumi 2014, 4-20). 이처럼 일본의 기업 보존문서도 결국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의미하며 창업자의 기록과 역사자료까지 포함된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공익재단법인 시부사와 에이이치 기념재단(渋沢栄一 記念財團) 홈페이지(<http://www.shibusawa.or.jp>)에서 설명하고 있는 ‘business archives’의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 기념재단은 ‘business archives’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기업의 연역과 사사(社史, 年史) 편찬에의 활용, 경영을 위한 자원,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역할로 설명하고 있다. 사사(社史)는 기업의 역사자원으로 기업경영자와 사원 교육을 위한 자료제공, 정보의 정리와 보존, 기업의 PR 활동을 목적으로 편찬된다. 경영자원으로서 ‘business archives’는 기업지배구조의 정보공개와 내부통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 브랜드의 형성, 기업 활동의 증거, 상품개발, 직원 교육 교재 등에서 기업의 자산으로 사용된다.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서 일본의 부국(富國)과 식산흥업, 근대화 과정을 기록한 유산으로 미래의 행보를 비추는 문화자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의 ‘business archives’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업무수행 과정 중에서 생산된 기록이 가치를 인정받아 영구기록으로 보존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용어의 표기 문제

(1) business archives 표기

국내에서 ‘business archives’는 주로 ‘기업사료’로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익한 2005; 김화경 2007). 기업의 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용어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기업사료’란 용어가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고

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기록(records)과 보존기록(archives)은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business archives’와 ‘business records’에 대한 개념은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국역이 올바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며 한자 문화권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용어의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기업사료협의회(企業史料協議會)의 영문 명칭을 ‘Business Archives Association’으로 사용하고 있다(企業史料協議會 *n.d.*). 따라서 ‘business archives’의 일역(日譯)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업사료(企業史料)’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기업사료협의회는 1981년 11월에 설립되어 36년간 활동한 단체라는 점을 봤을 때 오래전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회는 기업사료의 사회적·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사료의 수집·보존·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그 수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2018년 1월 91개의 단체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일반 기업을 비롯해서 도서관, 박물관, 각종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사료’는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과 공유되는 용어로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Omura(2004)를 비롯해서 관련 분야의 많은 일본 연구자들도 자신의 연구에서 ‘기업사료’의 영문 명칭을 ‘business archives’로 표기하고 있다(Sekino 2007; Takatsu 2015; Matsuzakai 2012). 또한, 메이지 시대 초기부터 1990년대까지의 일본의 기업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기업사료통합데이터베이스(企業史料統合データベース, https://j-dac.jp/infolib/meta_pub/G0000004kigyoo)의 영문 명칭이 Business Archives Online(BAO)로 사용되고 있는 등 ‘기업사료’는 일본에서 ‘business archives’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기록이 법에 의해 관리되며 이를 ‘당안(檔案)’이라 한다. 당안은 과거와 현재의 국가기구, 사회조직 및 개인이 정치·군사·경제·과학·기술·문화·종교 등의 활동에 종사하며 형성한 국가와 사회에 대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각종의 문자, 도표, 성상(聲像) 등 여러 형식의 역

사기록으로 정의된다(이승휘 2003, 612). 중국의 「당안법(檔案法)」과 「당안법 실시관법(檔案法實施辦法)」의 여러 조항에서는 기업의 당안관리(企業檔案管理)가 매우 중시되고 있으며, 기업당안관리는 행정기관의 당안관리와 동급으로 중시되고 있다(윤미경 2014, 23). 또한 사기업 및 해외투자기업의 기록은 「사영기업당안관리잠행규정(私營企業檔案管理暫行規定)」, 「외상투자기업당안관리잠행규정(外商投資企業檔案管理暫行規定)」 등의 법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2004;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1994). 법률에서는 기업의 기록에 대해 기업당안(企業檔案)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안칭시당안관(安慶市檔案局, <http://www.aqda.com.cn>), 북경시해전구당안관(北京市海澱區檔案館, <http://hdda.bjhd.gov.cn>) 등 여러 당안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기업당안(企業檔案館) 또는 기업당안관(企業檔案館) 등의 용어를 'business archives'로 대응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기업당안에 대한 영문표기는 'business archives'임을 알 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봤을 때, 'business archives'에 대한 표기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업사료(企業史料)로, 중국은 기업당안(企業檔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모두 동일하게 기업의 보존기록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사료(史料)' 용어의 한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료(史料)란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를 의미한다. 한국사의 연구·발전을 위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사료에 대해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으로 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는 일본에서도 동일한데, 코토반쿠(コトバンク, <https://kotobank.jp>)를 통해 확인한, 일본의 사전들에서도 사료(しりょう)를 '역사 연구의 재료가 되는 문헌이나 유물 등의 총칭'으로 설

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의 전제조건은 ‘역사연구’이며 이를 위해 활용되는 모든 기록임을 알 수 있다.

국내 기록관리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료’의 의미에 기록학적 의미를 적용하여 ‘기업사료’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business archives’의 개념은 기업에서 업무활동으로 생겨난 기록물이 지속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는 기록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개념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이 포함되므로 ‘사료’의 개념이 포함된 상위 용어로 볼 수 있다. 김익한(2005)은 기업사료를 ‘기업의 주요 업무기능 및 사건 사실과 관련하여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발생한 문서, 도서/간행물류, 박물류, 시청각류(사진) 등의 기록 중 역사적, 증거적, 전시적 가치가 높은 영구기록(archives)’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정의 역시 ‘사료’만의 의미를 넘어서 ‘archives(보존기록)’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기업사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김화경(2005)도 기업사료에 대해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한 다양한 유형의 기록 중에서 행정적, 법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구보존기록’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역시 김익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rchives’의 의미를 ‘사료’라는 용어에 담아 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고선미(2003)는 ‘business archives’를 ‘기업 보존기록’으로 사용하여 사료의 의미와 구분하기도 하였다.

‘business archives’의 개념에는 단순한 역사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적, 정보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쉘렌버그가 언급한 2차적 가치는 후대의 역사 연구를 위한 기록의 가치를 상정한 것이었지만, ‘business archives’는 기업의 주요 업무기능으로부터 파생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사료’라는 용어가 ‘business archives’의 범위를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록이 현용·준현용 기록과 보존기록의 구분을 통해 기록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사료’도 엄밀한 의미론적 구분을 통해 용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표 2>에서와 같이 ‘기업사료’ 보다

상위 개념에 위치하는 ‘기업기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하위에 업무에 활용되는 기록과 보존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본고에서는 이하 ‘business archives’를 ‘기업사료’가 아닌 ‘기업 보존기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표 2〉 용어의 재정리

구분	1차적 가치	2차적 가치
공공기록	현용기록, 준현용기록, records	보존기록(역사기록을 포함), archives
기업기록	기업현용기록, 기업준현용기록, business records, corporate records	기업보존기록(기업역사기록을 포함), business archives, corporate archives

3. 국내 기업 보존기록의 문제점과 현황

1) 기록관리의 소외지: 공공기록 중심의 발전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1999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 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채 되지 못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괄목적인 성과가 있어왔다. 국가기록원은 표준화 작업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최적의 수준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사회에 기록관리와 관련된 학회와 협회가 창립되어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여러 대학에는 기록관리 교육과정이나 대학원에 신설되어 전문가들이 육성되었으며,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공공영역에 집중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이는 관련법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권

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기록물 논란과 기록물 유출이 일어나는 등 아직까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거나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서울과 경남 두 곳에만 존재하는 것을 봤을 때 공공기록과 관련된 제도는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공기록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많은 부분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완숙된 수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학계와 협회 등 관련 단체는 기업기록을 포함한 민간 기록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기업기록은 법의 적용을 받는 영역도 아니며, 기업에서 활동 중인 아키비스트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이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갈 실무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 보존기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몇 차례 세미나와 토론 등이 진행되었을 뿐이다.³⁾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 기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생길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의 기업 보존기록에 대한 관심은 관련 협회의 활동과 기업 아키비스트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SAA는 1980년 기업보존기록분과(Business Archives Section, BAS)를 결성하였고 현재 회원은 618명에 이르고 있다(SAA *n.d.a*). 홈페이지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 위기관리,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업 아카이브(business archives)의 구축과 관리」를 주제로 3일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 아카이브를 실제 견학하며 아카이브

3) 2007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사서편찬과 기업사료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또한 2009년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에서 「지자체 및 기업의 기록관리와 기록콘텐츠」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 제8회 전국기록인 대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기록관리 컨설팅 방법론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2017년에는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월례발표회에서 「기업의 투명·책임을 위한 기업기록관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 바 있다.

와 도서관, 기록관(records management offices), 정보센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과정이 포함되어 있다(SAA *n.d.c*).

영국은 1934년 기업보존기록협의회(Business Archives Council, BAC)를 설립하였다(Business Archives Council *n.d.*). BAC는 2009년 TNA와 협력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기업 보존기록 관리를 위한 5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기록의 상업적 잠재력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돕기 위한 전략이었다(TNA 2009, 22).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Managing Business Archives' 웹사이트(<http://www.managingbusinessarchives.co.uk>)를 구축하였고 아카이브 구축, 예산과 법적 문제, 보존전략, 협업 등 보존기록 관리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영국의 대학원들은 교육과정에 기업기록(business records)을 일정 부분 다루고 있으며, 졸업생들에게 1년 기간의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기업 아카이브도 있다(TNA 2009, 9; Business Archives Council 2014, 1; Turton 2017, 56).

프랑스는 국가기관인 기록관리국(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이 1951년부터 기업 보존기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3개월 과정의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기록전문가협회(Association des archivistes français)의 교육센터에는 1984년부터 기업 보존기록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Turton 2017, 56).

일본의 경우 1981년 기업사료협의회(BAA)를 설립하여 기업 보존기록 관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의회는 전문가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본 국립 국문학연구자료관(国文学研究資料館)의 기록관리학과에서 마련한 'Archivist College'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Matsuzaki 2007, 5).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문가를 육성하여 기업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제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는 1990년 기업 보존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보존기록 전문분

과(Section on Business Archives, SBA)를 창설하여 세계 각 국의 회원들과 소통하고 있다(ICA *n.d.*).

2) 기록관리의 불모지: 기업의 인식 부족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http://kdca.info>)에 따르면, EDMS, KMS 등과 관련된 국내 전자문서산업의 규모는 2014년 기준 6.1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매년 5%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이 통계는 문서관리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과 수요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 등록된 754명의 회원(준회원 포함) 중 기업에서 보존기록을 담당하는 아키비스트는 단 한명도 없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에서 아키비스트를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평가-이관으로 이어지는 기록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기안문, 보고서 등의 행정기록과 전표와 같은 재정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당장의 정보자산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가치부여를 통한 미래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기업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보존기록을 관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다. 물론 기업의 기록 관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으며, 기록들은 기업의 정보자산으로 비공개를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일찍이 기업에 아카이브를 구축한 미국과 영국 등의 기록 관리 선진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FTSE(세계 주가지수) 100개 기업 중 약 20%의 기업은 전문 아키비스트를 고용하여 기업 보존기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록이 마케팅과 고객관계 구축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의 업적, 사내문화, 평판 등 기업의 고유한 이야기를 소개하여 기업에 대한 충성도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이 기업 활동을 증명함으로

써 각종 소송이나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TNA 2009, 3).

미국의 기업들은 회사의 비즈니스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해 보존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이용이 우선적이며 대부분 외부의 접근이 제한된다(Haglund & Elizabeth 2007, 1-2). 영국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기업 아카이브는 내부 고객을 위한 것이며, 외부 사용자에게 대한 제한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Williams 2006, 133). 다만 오래된 역사 자료에 한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며 기업의 재량에 따라 제공 대상과 범위가 결정된다. 일본도 미국, 영국과 같이 기업 내부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내부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인의 이용은 학술연구 용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전 신청 및 심의가 필요하다(Matsuzaki 2007, 8-9).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해외기업들은 기록보존에 대한 목적과 이용우선순위 등 기록관리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열람을 허락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보존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체 자료실이나 도서관을 통해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곳은 업무에서 생산된 기록이 저장되는 곳이 아니고 참고자료를 이용하는 도서관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는 업무상 생산된 기록을 계획적으로 수집하고 이관하여 보존기록으로 평가하는 주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 보존기록 관리 영역은 실무적으로 거의 개척되지 않은 불모지 상태로 볼 수 있다. 미국의 타이어 회사인 파이어스톤은 이미 1943년에 가치 있는 유용한 기록들이 적절한 평가를 통해 보존되도록 아키비스트를 고용하였고, 사내 기록관리 담당자(records manager)들과 종합적인 협력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Smith 1982, 274). 국내의 기업들도 기업 보존기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의 훌륭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문제적 상황이지만, 반대

로 미래의 아키비스트들에게는 미지의 개척지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 관련 학계와 협회, 그리고 기록전문가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기업 보존기록 현황: 창업자 보존기록 관리

앞서 서술했듯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보존기록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롯데그룹과 한화그룹, 유한양행, 아산재단 등 일부 대기업에서 기업의 역사와 창업자와 관련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창업자 중심의 보존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시할 기록이 필요하며, 전시 기획을 위해 창업자 기록의 수집과 선별, 정리 등 최소한의 기록관리를 실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중 아키비스트가 근무했던 아산재단의 사례를 통해 국내 기업의 보존기록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아키비스트를 찾기 어려운 만큼 실제 아키비스트가 근무했던 기업의 사례는 기업 보존기록관리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보존기록으로서 창업자 기록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며 단기간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한 세기 이상 지속된 기업도 많지가 않다. 국가와 기업은 오랜 기간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석유파동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격변의 시간을 겪은 기업들이 기록관리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한편, 격변기를 헤치며 기업을 일군 창업 1세대들은 국가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다. 기업의 창업자는 기업을 설립하고 인생 전반에 걸쳐 기업을 발전시켜왔으므로, 창업자의 삶은 기업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 따라서 창업자 개인의 기록은 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료(史料)로 볼 수 있으며, 기업들은 <그림 1>과 같이 이 기록들을 활용하여 역사를 증명하고 기업의 이미지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기록은 일차적으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삶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록에 포함된 사진, 시간, 인물들과 열개를 만들어 나간다면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집합기록으로 그 가치가 확대되기 때문이다(오의경 2017, 143). 또한 창업자의 기록을 활용하는 것은 1970년대 미국의 기업들이 아카이브를 설립하며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 주는 신뢰성을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기업 창업자의 기록을 활용한 TV 광고(서울신문 2010.9.25.)



(2) 아산재단의 사례

아산재단은 1977년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의료사업 및 의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재단 설립자는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아산(峨山) 정주영 명예회장(이

하, 창업자)으로 한국 산업발전의 역사와 함께해온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창업자는 1940년대부터 많은 계열사를 설립하였고, 1977년에는 아산재단을 설립하여 2001년까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왕성한 기업활동에 비해 남아있는 기록의 양은 그리 많지가 않은데, 창업자 이후 계열사가 독자 회사 체제로 분사된 이유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계열사들 내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만 발견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아산재단은 2010년 창업자의 10주기 추모사업을 준비하며 약 일 년 간 창업자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였다. 기존에 보존되거나 이관된 기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계열사와 관계자를 통해 사진, 시청각기록, 박물, 관련도서 등을 수집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이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창업자에 대한 일화를 채록하였다. 수집 작업의 후반부부터는 기록의 정리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아날로그 기록에 대한 물리적 정리와 디지털 파일에 대한 논리적 정리 작업을 병행하였다. 물리적 기록들은 보존상자와 봉투, 앨범 등의 전용 보존용품을 사용하여 별도로 마련된 아카이브에 정리되었으며, 디지털 기록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다. 디지털 기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분류체계가 필요했는데 기록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원질서가 흐트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제 분류 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주제 분류는 이용자에게 친숙한 방식이었고, 매뉴스크립트를 단기간 빠르게 분류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었다.⁴⁾ 주제분류는 창업자의 기업활동, 공익활동, 문화·체육활동, 정치활동을 대주제로 각각의 소주제를 전개하는 2단계 구조로 설계하였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수집기록관리시스템 패키지를 도입하여 아산재단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였다. 이 시스템은 수집기록, 도서, 간행물, 사진, 시청각, 박물 등 모든 유형의 기록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4) 또 다른 이유는 결재권자가 기능 분류의 장점과 개념, 용어 등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주제 분류를 선호했다는 점이다.

기록관리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ISAD(G)를 기반으로 기술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업무에서는 모든 요소를 기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정한 필수요소만 기술하였다. 기록들은 개별 아이템 단위로 시스템에 등록되었고 이에 대한 최종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아산재단 보유기록 현황

유형	건	비율
사진류	4,022건	73%
시청각류	235건	4%
도서/간행물류	571건	10%
박물류	145건	3%
문서류	481건	9%
신문류	71건	1%
합계	5,525건	100%

이후, 정리된 창업자의 기록들은 아산기념전시실의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주로 벽면 패널에 사용할 사진들을 선별하였으며, 기록 실물이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경우 동일한 모양으로 복제하여 전시하였다. 또한 전시실에 사진을 추가 전시하거나 교체할 경우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창업자 기록은 홍보영상, 사업홍보 포스터 등 대외 이미지 구축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되어 도서가 출판되기도 하였다⁵⁾. 그 밖에 업무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모든 기록의 이용은 아키비스트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고 외부에는 철저히 비공개되었다.

한편, 아산재단의 아키비스트는 기록관리를 위해 계획적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며, 조직 내부에서 전공자를 발굴해 전환배치된 경우였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창업자 기록 수집이 거의 완료된 시기에 업무에 투입되어 기록

5) 창업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20명의 학자가 4권의 연구총서를 집필하였다(울산대학교 아산리터십연구원 2015).

정리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였고 이후의 관리와 전시관 관련 업무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기록 정리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단계에서 아키비스트의 주 업무는 다른 행정업무로 전환되었고 기록관리는 부가적인 업무가 되었다. 그 이유는 추가로 수집되는 창업자 기록이 적었고, 기록의 이용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겉으로 보기에 모든 기록이 정리가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정리된 기록에 질서를 부여하고 상세한 기술을 통해 보존기록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고도화 작업이 남아있었으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들은 아키비스트의 모든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게끔 하였다. 다만 새로운 전시관을 만드는 일과 같이 기록을 이용한 장기 프로젝트가 발생할 경우 다른 업무를 배제하고 해당 업무에 주력하였다.

(3) 사례에서 확인한 가능성과 한계

이상 아산재단의 기업 보존기록 관리 현황에 대하여 기록의 정리부터 활용, 아키비스트의 역할까지 개괄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보존기록이 기업에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산재단에는 아키비스트에 의해 창업자와 관련된 역사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계열사에서도 아산재단에서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기록에 대한 이용요청으로 이어졌다. 도서관의 자료처럼 일상적인 이용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만, 조직 내의 행사나 홍보 등 기록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사용과 무질서한 관리가 통제되어 기록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으며, 기존 검색도구의 부재로 찾기 어려웠던 기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록의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둘째, 기록의 이용자들은 기존 PC의 폴더 등을 통해 동일한 사본(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기록관리시스템

에 등록된 기록이 더 정확하고 양질의 기록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디지털 파일의 경우 원본의 개념이 없으나, 이용자들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을 마치 원본기록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들은 이용자의 인식 속에서 진본성과 무결성, 신뢰성 등의 권위를 갖게 되었으며 진본사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셋째, 전시실 운영을 통한 아웃리치 서비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아산재단은 2개의 전시실을 설립하며 창업자의 보존기록을 적극 활용하였다. 기록들은 아산재단과 계열사의 역사를 증명하고 정체성을 보여주었으며, 방명록에서는 관람객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긍정적인 이미지는 기업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므로 보존기록이 지닌 역사적 가치는 현재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계점도 분명하게 존재하였는데 아산재단의 보존기록은 법률적 가치를 지닌 기록으로서 소송을 지원하거나 과거 업무를 밝히는 증거적 가치를 지닌 기록으로 활용될 수 없었다. 이는 현용기록 관리와 연계되지 못하고, 창업자 중심의 매뉴스크립트를 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업무기록이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유기적으로 관리될 때 기업 보존 기록에 대한 활용 가능성은 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창업자의 기록을 정리한 후 추가적인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기록관리 의무가 법의 테두리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조직의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기록을 정리하는 것은 낭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비스트에 의한 기록관리체계 구축 업무는 TF성 업무였으며, 이후의 관리는 부가적인 업무로 전략하였다. 비록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이 인정받고, 기록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나, 전문적인 기록관리 업무는 주요 업무로 지속되지 않았다. 결국 기업의 아키비스트는 기록관리가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기록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실제로 규명하여 경영진이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기업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공공기록관리 분야의 성과와 비교해본다면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기록관리 현실은 더욱더 척박하기만 하다. 이는 기업이 사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아산재단의 사례에서 봤을 때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 기록은 기업의 이윤창출이나 기타 이로운 활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의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봤을 때, 기업에서 기록관리 문화가 자리 잡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기업 보존기록(business archives)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보존기록의 개념과 성격을 논의하고 국내 현실을 진단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기업 보존기록의 개념과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보존기록이 기업의 업무활동으로 생겨난 기록에서 비롯되어 이후 지속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는 기록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영과 이익에 도움이 되며 역사를 증명하는 기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 나아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업사료'의 용어 고찰을 통해, 역사연구를 위한 '사료'의 의미론적 한계가 기업의 보존기록(archives)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사료'를 '기업 보존기록'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업 보존기록에 대한 개념과 성격, 용어의 정리는 향후 많은 연구자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문제로서 이 분야 추가 연구를 위한 초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업기록에 대한 연구들은 자칫 중구난방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기록학계에서 논의 되는 이슈 중 기업기록이 차지하는 비중을 소외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하였다. 공공기록이 법에 의해 관리되는 만큼, 또한 그 역사가 짧고 아직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기록관리는 사회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제는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전환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등 기록 선진국들이 기업 기록관리를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아키비스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학계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이 올바른 기록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록관리 불모지라는 표현을 통해 서술하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EDMS와 같은 문서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현용기록을 관리하고 있지만, 비현용 기록에 대한 가치조명과 관리는 미비한 실정이다. 즉, 생산-평가-이관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기록관리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록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의 보존 기록활용과 아카이브 운영 현황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현실에 대해 반추하였다. 그러나 한편, 기업기록관리의 불모지는 앞으로 많은 아키비스트들이 개척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땅을 제공하므로, 추후 올바른 개간을 할 수 있도록 학계의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기업들은 기록관리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지 않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전시관을 통해 창업자의 업적과 기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최소한 수집기록에 대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아키비스트가 근무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키비스트에 의해 창업자의 기록이 정리되고 활용된 아산재단의 사례를 통해

기업 보존기록 관리의 일부분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아키비스트에 의한 기록관리는 기록의 체계적인 정리와 올바른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며, 정리된 기록의 이용가능성과 권위를 높여줄 수 있었다. 또한 전시관과 같은 아웃리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역사기록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기업기록을 위한 아키비스트의 존재 여부는 기록의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아키비스트의 지속적인 업무유지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인원투입 대비 생산효과를 내야하는 기업의 이익논리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에 이익이 되는 기록의 활용은 아키비스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업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보존기록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이다. 그러나 연구에서 소개된 기업 보존기록관리 현황은 한 기관의 사례에 불과하므로 국내 모든 기업의 상황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기업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더 많은 사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기록관리 영역이 그러했듯이 수많은 사례 연구가 누적됨으로써 연구의 다양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들이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고선미. 2003. 포스코 보존기록물 관리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8, 96-136.
- 권한용.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법적 과제. 『동아법학』, 53, 717-752.
- 김익한. 2000. 한국의 기업기록관리에 관한 기초연구. 『경남대 기록관리학 학술심포지엄』
- 김익한. 2005. AM 개념과 전략수립.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업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2005-#1, 4.

- 김화경. 2007. 기업사료의 수집·평가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15, 219-262.
- 서울신문. 2010.9.25. 현대건설 인수전 본격화 ‘왕회장 광고전’. 검색일자: 2017.12.2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925006010#csidx13c91c649c56eea962e3b8bd870e0bb>.
- 오의경. 2017. 대학의 설립자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143-161.
- 울산대학교 아산리터십연구원,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 서울: 푸른 숲, 2015.
- 윤미경. 2014. 중국의 기업당안관리. 『기록인』, 27, 22-27
- 이승휘. 2003. 建國 後 文革期까지 중국 역사기록물의 보존과 이용. 『中國學報』, 47, 611-631
- 정미리, 임진희. 2016. 기업의 증거기반 설명책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기록학연구』, 48, 45-92.
- 한국데이터진흥원. 2005. 『삼양사 - 통합 정보관리 가능 ... 전사 지식경영 틀 완성』. 검색일자: 2017.12.26. https://kdb.or.kr/info/info_03_view.html?field=&keyword=&type=trend&page=363&dbnum=129441&mode=detail&type=trend.
- 企業史料協議會 n.d. 企業史料協議會のご紹介. Retrieved Dec 26, 2017 from <http://www.baa.gr.jp>.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2004. 私营企业档案管理暂行规定. Retrieved Dec 26, 2017 from http://www.saic.gov.cn/gts/zcfg/200410/t20041021_233653.html.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1994. 外商投资企业档案管理暂行规定. Retrieved Dec 26, 2017 from <http://www.mofcom.gov.cn/article/swfg/swfgbl/201101/20110107350845.shtml>.
- Business Archives Council. 2014. Successful Training Day Run by BAC and ARA's Section for Business Records, Business Archives Council, Newsletter, Retrieved Dec 26, 2017 from no.173.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materials/nlpring2014.pdf>.
- Business Archives Council. n.d. About the Business Archives Council Retrieved Dec 26, 2017 from <https://www.businessarchivescouncil.org.uk/about/aboutintro>.
- Christopher L. H, 1986. History, Business Records, and Corporate Archives in North America. *Archivaria*, 22, 40-57.
- David R. S. 1982. An Historical Look at Business Archives. *American Archivist*, 45, 273-278

- Douglas A. B. 1982. Corporate Archives Today. *American Archivists*, 45, 279-286.
- Hidemasa Omura. 2004. Thoughts on business archives(Records Management and Archival Management in Private Companies). *Records Management*, 48, 11-28.
- ICA. n.d. Section on Business Archives Retrieved Dec 26, 2017 from <https://www.ica.org/en/section-on-business-archives-sba>.
- Koide, I. 2014. Business Archives as Resource for Research on Japan. EARJS Leuven Conference.
- Matsuzaki, Y. 2007. Business archives in Japan: an overview and access issues, Japan-US Archives Seminar.
- Schmidt, L. 2011. *Using archives: A guide to effective research*.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AA. n.d.a. Business Archives Section. Retrieved Dec 26, 2017 from <https://www2.archivists.org/groups/business-archives-section>.
- SAA. n.d.b. Business Archives in North America: Invest in Your Future, Understand Your Past. Retrieved Dec 26, 2017 from <https://www2.archivists.org/groups/business-archives-section>.
- SAA. n.d.c. Business Archives ... Establishing and Managing an Archives Retrieved Dec 26, 2017 from <https://www2.archivists.org/prof-education/course-catalog/business-archives-%E2%80%A6-establishing-and-managing-an-archives>.
- Takashi, T. 2015. Business Archives and Archivists: It All Started from the Compilation of Company History. *Trends in the Science*, 20(11), 74-77.
- The National Archives. 2009.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England and Wales). Retrieved Dec 26, 2017 from <http://www.nationalarchives.gov.uk/archives-sector/projects-and-programmes/business-archives-strategy>.
- The National Archives. 2009. Corporate Memory: A guide to managing business archives. Retrieved Dec 26, 2017 from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information-management/corporate-memory.pdf>.
- Tousey, B. H, & Elizabeth, A. W. 2007. Access to Business Archives: U,S. Access Philosophies. Japan-U,S. Archives Seminar.
- Turton, A. 2017. *The International Business Archives Handbook :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 Historical Records and Business*. Routledge.
- Williams, C. 2006. *Managing Archives: foundations, principles and practice*. Oxford: Chandos Publishing.

- Yoichi S. 2007. 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ed. A Guide to Business Archives, *Records Management*, 53, 139-140.
- Yuko M. 2012. Business archives as assets : the need to work out value-added use and some further issues, *Th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62(10), 422-427.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전자문서산업 정보서비스. <http://kdca.info>
- 한화그룹공식블로그, 한화데이즈. <http://blog.hanwhadays.com/3869>
- 企業史料統合データベース. https://j-dac.jp/infolib/meta_pub/G0000004kigyoo.
- 北京市海淀区档案馆. <http://hdada.bjhd.gov.cn>.
- 安庆市档案局. <http://www.aqda.com.cn>.
- Managing Business Archives. <http://www.managingbusinessarchives.co.uk>.